

[2차시] 말에도 따라야 할 법이 있다



1. '-게요'

장윤정의 노래에 '어머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다 줄게요'가 자주 나오는데 가사를 적어놓은 것을 보면 하나같이 '다 줄게요'로 돼 있습니다. 이처럼 '-게요'가 나오는 경우 발음을 따라 '-게요'로 적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올게, 줄게, 할게, 먹을게'처럼 '-게'로 표기했으나 1988년 맞춤법이 바뀌면서 '-게'로 적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올게' '줄게' '할게' '갈게' '먹을게'로 표기해야 합니다. 맞춤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규정이 바뀐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처럼 '-게'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음을 '-게'로 하기 때문에 발음을 따라 '-게'로 표기하기 쉬우나 '-게'가 맞는 표기입니다.

2. '아니예요'

'아니예요'와 '아니예요'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예요'로 잘못 쓰기 쉬운데, 이는 '저예요' '할 거예요' 등과 같이 '-예요'가 어색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요'는 '이에요'가 줄어든 말이며, '이'는 명사를 서술어로 만들 때 쓰이는 조사입니다. 명사의 경우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없으면 '예요'와 결합합니다. '이에요'는 없는 형태입니다. '책+ 이예요→책이에요' '꽃+ 이예요→꽃이에요' '셋+ 이예요→셋이에요' '선물+ 이예요→선물이에요' '집사람+ 이예요→집사람이에요' 등과 같이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에요'가 붙습니다.

'저+ 예요→저예요' '나무+ 예요→나무예요' '하나+ 예요→하나예요' '거('것이'의 준말)+ 예요→거예요' 등과 같이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예요'가 붙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이에요'보다 '예요' 발음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사가 아닌 용언(동사·형용사)의 어간과 직접 결합할 때는 서술격 조사 '이'가 필요 없으므로 '예요'만 붙습니다. '아니다'의 경우 어간이 '아니'이므로 '아니+ 예요→아니예요'가 됩니다.

'이어요'와 준말인 '여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이어요→책이어요' '나무+ 여요→나무여요' '아니+ 여요→아니어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니예요'와 '아니어요'는 줄여서 '아네요' '아녀요'로도 쓸 수 있습니다.

[2차시] 말에도 따라야 할 법이 있다



명사일 때는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없으면 ‘예요’가 자연스럽게 발음되기 때문에 헛갈릴 염려가 많지 않습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간에 ‘예요’가 붙는다는 사실에 주의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니예요’가 아니라 ‘아니에요’라고 기억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3. ‘-길래’ → ‘-기에’

송창식의 노래 ‘사랑이야’에는 ‘당신은 누구시길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인기 드라마의 이름, 시 제목으로도 ‘당신은 누구시길래’가 쓰였습니다. 심수봉의 노래에도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래’는 ‘~(이)기에’를 잘못 쓴 것입니다.

‘~(이)기에’는 원인 또는 이유를 나타내거나 까닭을 캐물을 때 쓰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리도 무심하실까” “얼마나 울었기에 눈이 툭툭 부었느냐” “아프다고 하기에 걱정이 돼 찾아왔다” “사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등처럼 사용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울었길래’ 등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얼마나 울었기에’로 써야 합니다.

4. ‘-란’ ‘-난’

신문이나 잡지에서 글이나 그림 등을 싣기 위해 마련한 자리를 ‘난(欄)’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변화하는 독자의 욕구에 따르기 위해 신문 지면에도 새로운 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자투고란, 인사란, 취업란, 부고란’ ‘사람난, 알림난’ ‘오피니언난, 레저난’ 등 문패도 다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문패들을 보고 있노라면 같은 ‘欄’자인데도 어느 것은 ‘난’으로 쓰고, 어느 것은 ‘란’으로 쓰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난(欄)’은 한자어 다음에는 ‘-란’으로 표기하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난’으로 표기합니다. 취업란(就業欄), 공란(空欄), 고정란(固定欄) 등이 한자어 다음에 ‘-란’이 붙은 경우다. ‘사람난’ ‘어린이난’은 고유어 다음이라 ‘-난’이 붙은 것이며, 가십난(gossip欄)은 외래어 다음이라 ‘-난’이 붙은 것입니다.

[2차시] 말에도 따라야 할 법이 있다



5. ‘뒤처리’

무슨 일이든 마무리는 귀찮고 하기 싫은가 봅니다. “뒷처리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상대방에게 마무리 책임을 떠넘기는 암체죽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처리를 잘 부탁드립니다”는 말 그대로 ‘뒷’처리를 잘 해야 할 문장입니다. ‘뒤처리’가 바른 표기이기 때문입니다.

합성명사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ㄱ, ㄷ, ㅃ, ㅆ, ㅈ)나 거센소리(ㅊ, ㅋ, ㅌ, ㅍ)일 때는 앞말에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뒤처리, 뒤탈, 뒤쪽, 뒤통수, 아래쪽, 위쪽, 아래층, 위층’이 이런 경우입니다.

6. ‘-박이’ ‘-배기’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이란 뜻을 더하는 말로, ‘점박이’ ‘차돌박이’ 등처럼 쓰입니다. ‘오이소박이’도 ‘오이+소+박이’의 구조로, 오이에 소(만두, 송편 등에 넣는 고명)를 넣었다는 점에서 ‘-박이’가 붙습니다. ‘-배기’는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는 말로, ‘두 살배기’ ‘다섯 살배기’ 등처럼 쓰입니다. ‘-배기’는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나이배기, 알배기), 또는 그런 물건(공짜배기, 진짜배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박이’와 ‘-배기’가 헛갈릴 때는 ‘오이소박이’처럼 무언가 ‘박다’는 뜻이 들어 있으면 ‘-박이’를, 그렇지 않으면 ‘-배기’를 쓰면 됩니다.

※ 심화학습

‘-르게’와 마찬가지로 적는 것들

‘-르게’와 마찬가지로 ‘-르걸’도 ‘-르꼴’이 아니라 ‘줄걸, 할걸, 갈걸, 먹을걸’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르거야’도 마찬가지로 ‘줄거야, 할거야, 갈거야, 먹을거야’로 써야 합니다.

의문을 나타내는 ‘-르까, -르꼬, ㄴ니까, 리까, 쏘냐’를 제외하면 발음과 달리 모두 ‘-르게’ ‘-르걸’ ‘-르거야’ ‘-르거나’ 등 된소리가 아닌 예사소리로 적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